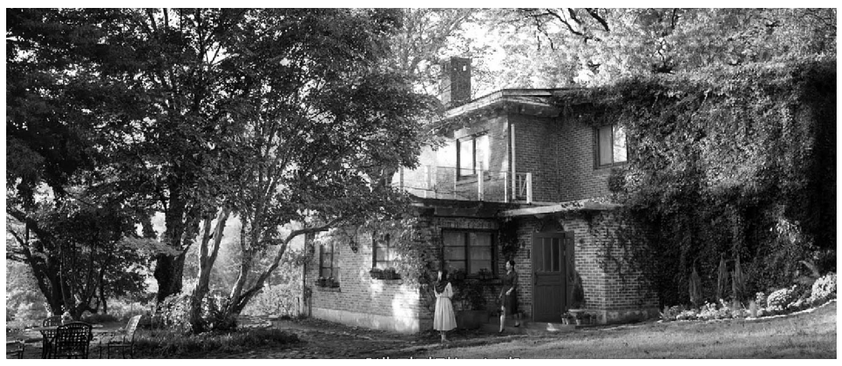
‘정년이’ 노래 선생님 집은 양림동… 촬영지로 인기 폭발

우일선 선교사 사택

넷플릭스 ‘이두나!’


드라마 ‘정년이’에 등장하는 호랑가시나무언덕 게스트 하우스 전경.

독특한 근대건축물·고즈넉한 풍경, 드라마·영화 로케이션 입소문

호랑가시나무언덕·선교사 사택 등 배경지 찾아 방문객 발길 줄이어

여성국극을 다룬 드라마 ‘정년이’가 시청률 14.1%(10회 기준)로 안방에 화제를 불러 일으키면서 덩달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광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이다. 극중 정년이의 음악 선생님 패트리샤 김의 집으로 호랑가시나무언덕 게스트하우스가 등장하자 시청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오는 23일 개봉 예정인 주지훈·정유미 주연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를 비롯해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선보인 ‘이두나!’, 2020년 작 ‘도시남녀의 사랑법’까지 다양한 작품이 이곳을 무대로 촬영됐다.

독특한 근대건축물과 고즈넉한 가을풍광이 어우러진 호랑가시나무언덕 게스트하우스와 우일선 선교사 사택, 이이남스튜디오 등이 방송가에서 주요 로케이션(촬영지)으로 입소문을 탄 것이다.

그중 양림동 호랑가시나무언덕 게스트 하우스는 드라마 ‘정년이’에서 음악 선생님 패트리샤 김(이미도 분)의 집으로 등장했다. 4화에서 정년이(김태리)는 이곳을 방문해 그녀에게 개인지도를 받는다.

과거 유명한 가수였던 패트리샤 김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강한 프라이드와 책임감이 있는 인물이다. 그녀가 매란국극단 연구생인 홍주란(우다비)과 푸른 대문 앞에서 담소를 나누는 장면 등에 게스트 하우스 전경이 담겨 있다.

1950년대에 건축돼 뉴수마 선교사 사택으로 활용됐던 이 공간은, 지난해 드라마 ‘이두나!’에서 주인공 두나(수지)와 원준(양세종)의 쉐어 하우스로 변신한 바 있다. 1~9편에 모두 등장할 만큼 ‘주 촬영 공간’으로 쓰이면서 극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컸다.

이와 함께 양림동 복합문화공간 ‘10년후 그라운드’와 골목길 곳곳에서도 촬영을 진행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아트폴리곤으로 향하는 돌다리는 촬영 당시 제작진이 설치한 것으로 아직 남아 있다. 주변에 신용구 작가의 ‘꿈의 조각들을 모으다’, 광주 학강초 학생들이 만든 광주양림골목비엔날레 출품작 ‘2024 소리로 빚은 평화’ 등이 있어 산보하며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제작진은 이와 함께 두나와 원준의 키스 씬 배경이 된 ‘붉은 벽돌 터널’도 제작했으나 현재는 철거된 상태다.

조금 더 위편에 자리한 우일선 선교사 사택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계단길은 단풍이 우거져 있어 작은 ‘터널’ 같았다. 이 공간 또한 ‘이두나!’를 비롯해 ‘구미호외전’, ‘장화홍련’ 촬영 당시 주요 로케이션으로 사용됐다.

한편 오는 23일 개봉하는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또한 촬영 장소로 양림동을 낙점했다.

작품은 원수의 집안에서 같은 날 같은 이름으로 태어난 남자 석지원(주지훈)과 여자 윤지원(정유미)의 전쟁 같은 로맨스를 그린다. 두 사람은 열여덟 살을 맞던 여름에 아픈 이별을 경험한 뒤 18년 만에 재회한다.

주연 배우들은 선교사 사택을 비롯해 바로 옆에 자리한 공터 등에서 연기를 펼쳤다. 이이남스튜디오 앞에 길게 뻗은 담쟁이 길, 호랑가시나무 언덕길도 일일 촬영장으로 활용됐다.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정헌기 대표는 정유미 배우가 “근대 문화유산 풍경을 간직한 이곳이 너무 아름답다. 광주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고 언급했던 촬영 당시 기억을 풀어놨다. 전국에서 촬영지를 섭외하러 다니는 영화 관계자들도 양림동을 둘러본 뒤 “광주에 숨어 있는 보석 같은 스팟이 많다”며 감탄했다는 후문이다.

그는 이어 “광주 사람에게는 지역 공간들이 익숙할 수 있지만, 이들 장소를 영화나 드라마에서 마주하면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대를 둘러보던 황성연(59) 박효영(여·59) 부부는 “드라마를 촬영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 일찍 여수에서 찾아와 건물을 살펴보고 있었다”면서 “근대 건축양식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광주, 전남 공간들이 ‘현대 미디어의 옷’을 입게 돼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밖에도 양림동 일대는 영화 ‘해어화’, ‘밀정’, ‘위험한상견례’를 비롯해 드라마 ‘너를 기억해’에서도 촬영지로 채택됐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목포대-순천대 ‘통합의대’ 막판 회동

공모 마감 앞 대학 운영 등 조율…김영록 지사 “통 큰 결단 해달라”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및 대학병원 신설 지역을 정부에 추천하기 위한 공모 마감을 앞두고 목포대와 순천대가 막판 회동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의 첫 회의를 언급하며 “도민만을 생각하고 15일까지 마지막 통 큰 결단을 해달라”고 호소한 만큼 15일 두 대학이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대와 순천대는 15일 오후 5시부터 순천에서 회동을 갖고 대학 통합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순천대와 목포대 관계자들은 기획처장을 중심으로 5명씩 실무협의체를 꾸리고 13일 남악에서 회동하는 등 지금까지 10차례 회의를 이어왔다.

김 지사가 제시한 통합 시한 15일을 하루 앞두고 대학 관계자들은 통합의대 운영 문제 등 이견을 조율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이미 두 대학이 큰 틀에서 통합에 합의한 만큼 일부 이견만 조정한다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1차 공모 마감인 15일까지 통합에 이르지 못할 경우 2차 공모 마감인 20일까지 협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남도 분석이다.

앞서,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지난 12일 직접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양 대학 통합은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을 확실히 담보하면서 대학 미래 발전, 전남도민 전체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최선책”이라며 15일까지 합의해 결론을 내려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지난 11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만큼 2026학년도 정원 관련 협의도 빨라질 수 있어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단일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전남도는 15일까지 두 대학이 통합에 합의하면 의대 설립 공모를 보류하고 통합의대로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신청할 방침이다. 통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0일까지 공모 절차를 진행해 정부에 한 개 대학을 추천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두 대학이 실무협의회를 거쳐 통합을 위해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반드시 대학 통합을 이뤄 대학병원을 유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배민·쿠팡이츠, 3년간 중개수수료 낮춘다

내년부터 2.0~7.8%로 인하…상생협의체 진통 끝 의결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115일간 회의 끝에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일부 낮춘 차등수수료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오후 12차 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액 상위 0~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적용한다. 배달비는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1900~34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배민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적용 기간은 내년 초부터 향후 3년이다.

공익위원들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되기 위해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안을 받아든 입점업체 단체의 의견은 갈렸다.

최근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입점업체 부담 완화에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상생협의체는 밝혔다.

결국 반대 입장인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등만의 찬성으로 최종안이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공공비축 매입물량 확대해 ‘쌀값 안정’

실무 당정협의회…재배 면적 감축 물량 시도별 배정 추진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 비축 매입 물량을 늘리고 재배면적 감축 물량을 시도별로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2024년산 쌀이 12만8000t(톤) 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간 내림세에 있던 산지 쌀값이 지난 5일 80㎏에 18만2700원을 기록하는 등 보합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작황, 수급 여건 등의 요인으로 쌀값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 비축 및 시장 격리 등 올해 총 56만t의 수확기 쌀을 수매하고 벼멸구 피해 분량도 연내 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공공비축미 잔여 예산 발생 시 쌀을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재배면적 감축 물량을 각 시·도에 배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12월 지역별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

중앙신용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과정

· 일 시 : 2024. 9. 2(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뚜리보석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 료

· 일 시 : 2024. 8. 26(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 설 팅(전문상담) 분 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해산 및 채권 신고 공고(2차)

본 법인은 2024년 10월 17일 구성원 회의에서 해산 결의되었으며 주무관청 법무부로부터 2024년 10월 30일 해산에 대한 인가를 받았으므로 본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2025. 1. 13.까지)에 그 채권액을 본 법인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법무법인 광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63번길 2, 501호 502호
청산인 박 철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2024년 11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바,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주식회사 도담디자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30번길 16 (송정동)
청산인 윤부준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박선화(770603-2XXXXXX)
- 최후주소 : 목포시 미항로 206, 101동 1509호 (옥암동, 제일아파트)

피상속인 망 박선화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4느단10438호로 신청하여 2024년 11월 12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1월 15일

- 상속인 : 박선미(791021-2XXXXXX) 광주 서구 화운로126번길 7-6, 103동 501호(화정동, 더브이테라스)
- 신고기간 : 2024. 11. 15. ~ 2025. 1. 25.
- 채권신고처 : 상속인 박선미의 주소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72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